

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최원형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코로나가 끝나고 여가 및 문화생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래방, 찜질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접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화재발생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득 여기서 공급해줄 것이다. 다중이용업소가 정확히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049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42%를 차지했으나, 인명피해는 28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11%를 차지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고시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순으로 고시원 화재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고, 취침, 음주, 가부 등 피난능력을 떨어뜨리는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관리방법을 몇가지 알려주려고 한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이다. 영업 시작 전 영업장 정리정돈으로 가연물이나 위험물을 제거하고 피난이 원활하도록 비상구를 상시 개방하고, 영업장 내 피난 안내도와 비상구 위치 확인, 비상구와 피난 계단에 장애물 적치 금지, 피난·방화 시설 폐쇄행위 금지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비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출입 중지 명령과 더불어 업소 출입자에게 비상구 위치를 안내해야 하고, 영업이 종료된 후 업주나 종업원은 영업장에서 숙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 업소들은 대부분 같은 건물에 밀집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평소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는 자율안전관리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www.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사람의 잘못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간은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며 죄를 숨기려는 변명과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자기가 범한 죄를 숨기려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죄인을 괴롭힌다.

독일에서 교도소 간수가 쓴 글에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란 글이 있다. 사형수가 마지막 죽는 순간 공통점은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쳐다본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알고 있는 일에 양심의 소리대로 살았는가를 반성하는 것 같다 라고 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속이려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은 속일 수 없다.

인간이 죽으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육신은 흙이 되고 영혼은 승천한다고 한다.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양심을 속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에 이르니라"라고 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을 연계한 말이다. 사람들은 몸에 난 흉터는 옷으로 가리고 얼굴에 남겨진 흉은 화장으로 가리고 산다. 지금은 성형수술 발달로 그 흉터들을 모두 지우고 사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이 살아온 흔적은 지울 수가 없는 세상이다. 요즘 떠드는 청문회가 그렇고 거드름 피우던 권력의 삶의 자취가 그렇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고 물어봤다. 왜 인생 삶의 잘못은 지울 수가 없는가, 대답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데 어찌 그 잘못이 지워지지 않냐고 하늘과 땅, 사람들은 그렇다.

어머니의 은혜 노래와 스승의 은혜 노래 가사에 은혜가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더 높고 깊은 것이 있으니 욕심과 욕망이다.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 욕심 욕망이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치유해 보려고 도덕이 생겼고 법이 생겼고 종교가 생겼지만, 그 무엇도 사람의 욕심 욕망을 완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영원하다. 살아가는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신이 즐기는 만행을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늘이 찍어둔 동영상, 땅이 녹음해둔 목소리가 훗날 사람들의 눈과 귀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르기를 "죄악 중에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재앙 중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고, 허물 중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느니라"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안 했다고 속이며 재판 받고 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 범죄의 행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므로 욕심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 앞에 회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법을 다루고 죄인을 다루던 판검사 출신이 요직에 배치되어 올바른 법치 정치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법에 따라 정치하는 법치주의 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과 법에 따라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야 하며, 지나친 욕심 때문에 범한 죄는 자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므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와 벌'의 소설에서 주인공 라스 콜리니 코프는 살인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벗어나 살았지만, 하늘과 땅이 알고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고 벌을 받으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했다.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양심의 질책 때문에 양심선언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려는 것이 지수다. 행복하게 살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양심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

봄나들이, 안전습관 실천으로 행복한 추억을

기고

이종하 장흥소방서 대응구조과 생활구조구급팀장



차 등 긴급차에 대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천하도록 하자.

사람들이 많은 행사장 등에서는 지정된 상소에 주차하여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나들이 일행과 노래방이나 식당 등을 찾을 때는 소화기나 비상구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활짝 핀 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밖으로 이끈다. 지역마다 축제와 각종 행사가 여기저기서 개최되어 산과 들, 행사장을 찾는 나들이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봄철에는 몸도 마음도 느슨해져 화재,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집을 나서기 전에는 화기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전기코드는 뽑아 놓았는지, 기타 화기취급장소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차를 운전할 때는 우선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시간에 맞춰 가야 할 곳을 미리 여유있게 나서 시간안배를 적절히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탑승한 가족 등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주시시키고 규정된 속도와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운전 중 담배를 피운다거나 핸드폰 통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행 중 소방차나 구급

산행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최소 2인 1조로 행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산행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구급약이나 모자, 장갑 등을 챙기고 낙석의 위험도 있으므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또한 봄철의 산속은 아직 냉기를 머금고 있어 가벼운 차림으로 산을 올랐다가는 냉해를 볼 수 있기에 보온에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작은 관심과 여유를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작은 안전습관의 실천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작임을 인식하고 봄나들이가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원해 본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